

홍보 행사의 묘미

〈편집자〉

모든 일이 그렇듯 계획할 때와 시행할 때, 시행한 후의 평가는 다소 기대에 못미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협회에서 연례 행사로 치르고 있는 각종 행사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번 만큼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또는 더욱 멋지게 효과 증대에 포인트를 맞추어야지 하면서도 행사가 끝나고 보면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 현상모집 기대의 바램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 불조심 표어·포스터 현상 모집에서도 마감 몇일전까지만 해도 만족할 만한 작품 내용은 고사하고 응모작의 수량만이라도 많이 들어와야 할텐데 하는 바램은 실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는데 충분한 일이었다.

마감 당일에 와서야 포스터 192점·표어 2,614점이 접수되고 작품다운 작품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슴을 쓸어 내릴 수 있었다. 사람이란 무릇 감사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언제 그랬더니 싶게 작품 수준이 어땠고 작품 응모 계층이 어땠다는 등 조금전의 근심 걱정은 온데 간데 없이 작품의 품평에 열을 올리는 여유를 보일 수 있게 됐다.

17년째 현상 공모하고, 그 아이디어를 불조심 매체로 활용하는 협회로서는 포스터 감각의 유행에 따라 국민의 시대적 변형을 가늠하는 계기로도 활용된 것이다.



거창한 생각까지 해가며 국민의 습성까지 말할 수 있는대는 협회 홍보의 나름대로 그만한 자부심과 긍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제20회 소방안전 봉사상 시상식 성황리에 치뤄

금년에 20회를 맞이한 소방안전봉사상은 포스터 현상 공모 행사와는 전혀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장장 6~7개월을 앞두고 계획하고 구상하며 생각해야하는 소방안전봉사상은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을 요구하는 행사이다.

끊임없는 구상과 수백번씩 되뇌이며 가상 연습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중요 절차인 것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헬리혜성을 발견한 헨리의 대발견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다고 했듯이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행사도 숱한 나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훌륭히 치를 수 있었다고 본다.

6개월을 앞두고 수상자 선발계획부터 수상자 인선에 이르기까지 관계 공무원과의 상충되는 생각을 한곳으로 이해되도록 조정하고 타협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중의 하나이다.

20년간 함께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행사 때마다 달리 생각하게 되는 이견도 시대적 소명에 의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단체에서 국가 공무원인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이 포함된 시상을 한다는 것은 협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이 아닌가 평가

한다.

말이 20년이지 옛날 잣대로도 강산이 두번 변하고 성년의 나이가 되는 이 세월 동안을 행사해 온 협회의 기여는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회가 그동안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 선발하여 시상한 소방관 208명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만도 2억 6천 4백만원이 소요 되었다.

20년전 본 시상 제도를 마련했을 당시에는 방화 안전봉사상이라고 명명하여 시상하여 오던중, 82년부터 소방안전봉사상으로 개칭하여 음지에서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정착 되었다.

해마다 각 시도별 예심 인원은 48명이 선정되고, 내무부와 4박5일간에 걸쳐 전 지역을 순회 방문토록 되어 있다.

생소한 지역을 지역별 담당으로 분리하여 떠나기 하루전에 받아보는 지역의 현황으로는 사전 지식을 계획하고 알아 볼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수상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처이기는 하나 그 만큼 관여하는 실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교통 연결 문제, 시간적 문제, 경비 문제, 인원 동원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로의 공적 조서의 실사 및 여론 수렴을 위해 동분서주해가며 공적을 심사하는일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듯 여러가지 부분별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 해야되는 일이 행사에 따른 각 기관별 협조 문제를 체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악대와 불조심어린이단원의 행사 참여 요청, 소방관 동원, 민간인 동원 및 내외 귀빈의 참석 여부에 이르기까지 어물쩍 지나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행사장의 안내원 배치에서 재털이의 위치 문제까지 체크하지 않으면 행사의 흐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행사 5일을 앞두고 이사장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협회의 가장 큰 행사를 몇일 앞둔 우리 실무진으로서서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행사장의 각종 셋트·안내원·안내장·보도 자료 의전 문제·초청 대상자 문제 등 모든 것이 뒤틀리고 뒤죽박죽되는 것이다. 이미 준비한 준비물은 모두 바꾸고 고쳐야만 했다.

다행히 각 부서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행사일 전까지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한 여건속에 금년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은 어느때 보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내무부장관의 참여로 수상자의 기쁨은 더했으리라 생각된다.

이 행사를 치르는 실무진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수상대상자의 계급범위도 간부급까지 다양화하여 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㉞